

[Original Article]

Maximalism characteristics expressed in Rei Kawakubo's collections

Soo yeon Park and Mi young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
Dept. of Beauty & Art, Myungji College, Korea^{*}

레이 가와쿠보 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 분석

박수연 · 김미영^{*†}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명지전문대학교 뷰티아트과^{*}

Abstract

Maximalism in modern fashion, which is contrary to the current fashion market that emphasizes functionality and practicality, is an important notion that has been expressed in a variety of ways through designer's unique sense with a mixture of experimental design. With such creative work that suits a trend in novel fashion design, Rei Kawakubo is a current representative of Comme des Garçons who has not only introduced deconstructivism and Japanese-style avant-garde to the fashion industry for the first time. Our research, thus, analyzed the characteristic of maximalism's expression based on the features represented in her collection. Firstly, Expandability is classified as a method of distorting parts of a body and a method of excessively overinflating the silhouette of clothing. Secondly, decorations are expressed in the other as blending different types of materials together. Thirdly, fantasy evokes a fresh and stimulating surreal sensation that may only be felt in an imagination by assigning supernatural and amusing expression to the garment. The forth, fusion refers to a creation of novelty from combining various types of elements and images. The fifth, experiment is unique trait that develops mysterious images, consisted of various details. The sixth, non-structure is different from an initial form of garment that maintains a bilateral symmetry. The importance of our research lies in proposing a fundamental data for development of creative design as well as in expanding a range of possible expression for maximalism,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maximalism seen in Rei Kawakubo's collection.

Received August 16, 2016

Accepted October 28, 2016

[†] Corresponding author
(big3peal@hanmail.net)

ORCID

Soo yeon Park

<http://orcid.org/0000-0002-7192-7968>

Mi young Kim

<http://orcid.org/0000-0003-1740-1938>

Keywords: maximalism(맥시멀리즘), Rei Kawakubo(레이 가와쿠보), expandability(과장성), decorations(장식성), fantasy(환상성)

I. Introduction

1. Purpose and significance

오늘날 현대사회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적인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여러 문화가 공존하면서 음악, 건축, 디자인, 종교 등 여러 분야에 있어 획일화된 형식보다 혼재된 양상을 띠고 있다. 현대 패션산업도 다양한 분야와 문화가 융합되어 나타나고 보다 더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21세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과도함과 극단의 미를 의미하는 맥시멀리즘(maximalism)은 다원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고 끊임없이 새로움과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는 현대 패션을 거부하며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 기술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패션경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디자이너를 한 작품의 창조자로 실현시키는 표현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Jeong, 2008).

맥시멀리즘은 패션 역사의 한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고 새로운 디자인 발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연구 주제이며 현재, 이러한 특성들을 주제로 여러 디자이너 및 작품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한다.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는 이러한 새로운 패션 디자인의 흐름에 맞는 창의적인 작품 활동으로 컬렉션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폼데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창시자이자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체주의, 일본식 아방가르드 디자인을 패션계에 처음 알린 대표적인 인물이다. 현재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레이 가와쿠보의 작품에 나타나는 해체적 특성과 아방가르드 이미지, 그의 작품 세계와 업적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현대패션에 주된 흐름인 맥시멀리즘의 관점에서 본 그의 작품에 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계에 역사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창의적인 작품 활동으로 평가 받고 있는 레이 가와쿠보의 폼데가르송 컬렉션에서 보여 지는 맥시멀리즘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나아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패션의 한 영역인 맥시멀리즘의 무한 가능한 표현범위를 확대시키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II. Background

1. Rei Kawakubo's fashion design

일본의 유명한 브랜드 ‘폼데가르송’이라는 쿠티르 하우스의 설립자인 레이 가와쿠보는 컬렉션마다 늘 새로운 소재와 의복 형태를 창조하며 시즌마다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그의 패션디자인은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은 오직 독특한 구성과 특이성으로 주목을 받아왔고 남다른 감각과 실험정신으로 일본식 아방가르드 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자리 잡았다.

그는 1960년 게이오 대학에 입학하여 미술과 문학을 전공하였고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 활동을 시작하였다. 스타일리스트로서의 활동은 그가 디자이너의 세계로 접어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1975년 프랑스로 ‘소년들처럼(like boys)’이란 뜻을 가진 브랜드 ‘폼데가르송’을 론칭하였다. 이후, 1981년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첫 무대로 일본 디자이너들은 세계무대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세계 여러 패션인들의 관심을 받으며 요지 야마모토, 준야 와타나베, 이세이 미야게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일본 디자이너로 활약해 나갔으며 레이 가와쿠보는 체형과 사이즈를 무시한 오버사이즈한 의복 형태로 서구 미학의 오래된 원칙을 무너뜨리고 일본 전통 복식과 현대적 이미지의 혼합,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발전된 해석을 전개하였다(Lee, 2012).

레이 가와쿠보의 철학이 담긴 ‘폼데가르송’은 처음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로 시작을 했지만 이후, 준야 와타나베, 구리하라 다오, 간류 후미토를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하면서 총 4명의 수석 디자이너가 각각 1개 이상의 라인을 맡아 공동 수석 디자이너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는 메인 여성의류 라인(Comme des Garçons), 짙은 묵색 성향의 여성의류 라인(Comme des Garçons Noir), 메인 남성 의류 라인(Comme des Garçons Homme Plus) 등 많은 라인을 만들어 고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다(“Comme des Garçons”, 2016).

레이가와쿠보 의상을 표현하는 특징은 해체주의이다. Lee(2010)는 레이 가와쿠보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기존의 의복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재구성하고 해체적 패션을 선보이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이러한 독창적인 작업은 반전, 치환, 교차, 반복이라는 방법이 다양한 각도로부터 시행됨으로 현대인들의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신체 포름의 창조, 새로운 패션을 선보이는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Lace Sweater’인 <Fig. 1>은 해체주의를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20세기 패션사의 대표적인 디자인이며 무언가에 의해 찢겨진 모양의 구멍을 낸 스웨터는 완성된 의복이 갖는 의미를 거스른 해체성을 표현한 작품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다. 레이 가와쿠보는 최근 2014년 F/W 컬렉션에서 자신의 이러한 대표적인 작품을 재해석하고 남성복의 주제로 선정하여 컬렉션을 진행하였다. <Fig. 2>는 <Fig. 1>에서와 같이 남성 정장 재킷의 허리부분과 오른쪽 가슴부분에 구멍을 내고 이전의 작품에 대한 연상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의 독특한 디자이너 세계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레이 가와쿠보의 의상의 특성으로는 복잡하게 짜여 지고 다듬어진 좌우에 밸런스 차이를 심하게 두는 형태의 어시메트리(asymmetry) 패턴, 직물의 성질을 고려한 바이어스의 활용을 들 수 있고 마감이 덜 이루어진 일탈을 추구한 미완성이거나 수없이 세탁하여 낡아진 옷과 같은 마이너스의 미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Lee, 2010).

Buxbaum(2005)는 그가 여성의 일반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을 의복으로 표현한 최초의 인물이라 하였고 천의 깊이에 따라 변화되는 실루엣으로 그 시대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었던 감춤과 드러냄의 상반

됨이 아닌 색다른 방법을 시도 한 것에 패션역사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였다. 또한, 그녀의 옷은 입는다고보다는 걸친다는 느낌을 주며 술기나 주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미완성의 험 라인, 풀어헤쳐진 술기, 찢기거나 조각난 천을 두르거나 휘감는 스타일로 세련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와 느낌이 표현된다. 이처럼 그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의상을 착용한 사람은 그와 이 자유로운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Lee, 2010).

레이 가와쿠보 의상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은 블랙컬러의 사용이다. Lee(2003)는 그에게 있어 블랙은 모든 색상을 아우르는 동시에 최종적인 색상의 귀착점이며 여러 가지 색상들 가운데 가장 화려함이 가능한 색채라 하였고 블랙의 확장과 가능성을 추구한 디자이너라고 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컬렉션에서는 블랙컬러의 사용이 많이 돋보였다. 블랙컬러는 아나키스트의 상징이며 지식인과 예술가, 스페인 패션에서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상징하는 색으로 당시, 파괴와 가난, 굶주림을 검정색을 이용해 만들어 낸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의 작품을 언론에서는 포스트 히로시마 룩이라 특별하였다(Buxbaum, 2005). <Fig. 3>은 1969년, 가와쿠보가 디자인 한 Black dress로 여러 개의 옷이 하나의 옷걸이에 걸려있는 형태로 보이며 검정색이 주는 어두움과 단조로움, 비대칭과 미완성 형태의 디자인은 ‘안티 패션’을 만들었고 이는 곧 ‘추의 미학’으로 해석되었다. <Fig. 4>와 같이 그는 현대 패션에서도 비구조적이고 해체적인 패턴



<Fig. 1> Lace Sweater: Rei Kawakubo (1982). From. Lee. (2012). <http://navercast.naver.com>



<Fig. 2> Comme des Garçons 2014 F/W. From. Vogue. (2014a). <http://www.vogue.com>



<Fig. 3> Black dress: Rei Kawakubo (1969). From. Yoo. (2012). <http://www.elle.co.kr>



<Fig. 4> Comme des Garçons 2011 S/S. From. Vogue. (2010b). <http://www.vogue.com>

의 작품을 진행하였고 대량생산을 거부하며 그만의 독창성을 강조하며 특별히, 블랙 컬러의 사용으로 레이 가와쿠보 작품의 특징을 부여하였다.

이렇듯, 패션역사의 한 획을 긋고 현존하는 창의적인 디자이너 레이 가와쿠보의 컬렉션 작품에서 보이는 패션사조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현대 패션의 흐름을 읽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2. Concept and characterization of maximalism in modern fashion

맥시멀리즘은 원색적인 화려한 색상, 과감하고 과장된 장식과 풍성한 부피감 등 과장된 조형수단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고 간결하며 장식을 최소화하여 세련되고 우아한 미술 또는 그러한 경향을 의미하는 미니멀리즘(minimalism)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최근 패션 경향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Lee, 2004). 2000년대에 이르러 다양한 분야에 그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맥시멀리즘은 ‘더 많은 것이 더 많다’ 또는 ‘큰 것이 아름답다’는 의미로 패션 분야에 있어서 90년대의 극도로 절제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에 싫증이 난 디자이너들이 반대 개념에 의미를 부여하고 과장의 미를 추구하면서 시작되었다(Lee & Roh, 2012). 현대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맥시멀리즘의 아름다움을 작품에 표현하기 위해 왜곡, 변형, 과장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복잡함을 매치시키고 실험적,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시하여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창조적 역할을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실질적인 소재나 시대, 이미지, 독특한 감성을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도구로 작용한다(Park, 2008).

패션분야에서의 맥시멀리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2003)는 현대복식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연구에서 조형적 특성을 로맨틱 히피룩과 로맨틱 스포츠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히피룩에서 보여지는 조형성은 다문화주의와 자연주의, 스포츠룩에서 보여지는 조형성은 다기능적 조형성과 크로스오버 조형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Park(2008)은 현대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을 퓨전성, 확대성, 장식성, 환상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퓨전성은 동서양의 스타일 혼합, 패턴과 디테일의 혼합으로 표현된다고 하였고 확대성

은 과장된 실루엣과 디테일의 과도한 증첩, 다양한 패턴 및 소재, 컬러의 믹스매치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장식성은 수공예적인 장식과 과잉으로 디테일을 추가한 형태로 표현되며 환상성은 상상속의 이미지, 동화적인 이미지,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Jeong and Jung(2009)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패션 유형을 분석하였고 그 유형을 과장성, 멀티에스닉, 퓨처리즘, 엘레강스, 로맨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과장성은 단순한 몸의 과장 보다는 실루엣과 상관없는 작가가 말하고자하는 조형성을 강조하였다. 멀티에스닉은 민족적이고 토속적인 소재들의 사용을, 퓨처리즘은 광택이나 골드, 실버 소재의 독특한 사용을, 엘레강스는 라인과 색채의 변화로 나타났으며 로맨틱은 다듬어진 선, 형, 미묘한 색, 빛, 재질의 사용으로 발전 표현된다고 하였다.

Lee and Roh(2011, 2012)는 빅터 & 롤프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을 확대성, 장식성, 환상성, 퓨전성으로 알렉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은 확대성, 장식성, 퓨전성, 환상성, 실험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Kim and Lee(2011)는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패션디자인의 표현성 연구에서 확대과장성, 장식성, 혼합성, 비구조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확대과장성은 상반신, 하반신, 상하반신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장식성은 수공예로 공들여 장식을 하거나 에스닉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혼합성은 의복의 겉과 속을 반대로 착장하는 반대 법에 기인한 아이템의 혼합, 여러 문양을 믹스 매치한 문양의 혼합, 성의 혼합으로 나누어지고 비구조성은 비대칭적 소매나 비구조적인 스커트 햄라인 등에서 보여지는 외형적 실루엣의 비구조성과 네크라인이나 커프스, 사선형태의 여밈 등, 실루엣 내의 비구조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Lee and Roh(2013)는 장 폴 고티에 오프 쿠튀르 컬렉션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확대성은 거대한 길이와 크기, 타프타 원단의 이중광택, 티어드 스타일 장식등으로 표현되었고 장식성은 티어드 스타일의 장식, 크리스탈의 장식으로 퓨전성은 현대적 이미지에 에스닉풍이나 다문화적인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표현된다 하였으며 실험

성은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의 조합을 표현 요소로 설명하였다.

Kim and Yoo(2015)는 남성복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 연구를 주제로 5가지 요소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즉, 문화와 양식적 혼재인 혼성적 맥시멀리즘, 장식적, 관능적, 환상적인 요소의 접목과 과도

한 자식이나 럭셔리한 퇴폐성으로 표현된 장식적 맥시멀리즘, 실루엣의 확대 및 아이템의 중복으로 표현된 과장성 맥시멀리즘, 유희적 장식, 번덕스러운 느낌을 주는 양식으로 표현된 유희적 맥시멀리즘, 현대적 이미지의 조합과 과거의 성공한 유명인사의 이미지를 재현함으로 표현된 복제적 맥시멀리즘으로 분류

<Table 1> Journal of previous studies related maximalism

Researchers	Research topics	Maximalism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aximalism characteristic elements
Lee, Hyo-Jin (2003)	Expressed in modern costume Maxi minimalism research	Romantic Hippie Look	
		Formative multiculturalism	Exotic patterns items, Bohemian-free, layering of the atmosphere, empire style
		Formative naturalistic	Wind, flowers, the folds of the sea motif, pleated liberty fabrics used
		Romantic Sports Look	
		Multi-functional	Multiplicity of the clothing of dissimilar style
		Crossover	Material by the mixture of 2 or 3 factors like the fusion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and the combination of details
Park, Eun-kyung (2008)	A study on maximalism in the modern fashion - Focused on the 2000s -	Fusion	Mix of eastern and western styles, mix of pattern and details
		Enlargement	Exaggerated silhouettes, excessive overlap of detail, variety of patterns, materials, involute color matching
		Decorative	Handicraft decorations, excessive decoration for decoration
		Fantasy	Imagination and fairy-tale image, surreal image
Jeong, Sun-Hwa & Jung, Hyun-Joo (2009)	Characteristic to express maximalism fashion appearing in fashion collection	Extension	Exaggerated style, hourglass silhouette, bulk silhouette
		Multi-ethnic	Handicraft materials, print fabric, the use of fur and leather
		Futurism	Glazed fabric, gold & silver color mix
		Elegance	Hourglass silhouette
		Romantic	Manicured line, shape, subtle color, light, materials
Lee, Ji-Hyun & Roh, Youn-sun (2011)	A study of maximalism shown in the works of Victor & Rolf	Expandability	Balloons, variegated detail and repetition of material
		Decorations	Exaggerated ruffle ribbon, luxurious development of advanced materials
		Fantasy	Chapter surreal atmosphere fashion show, humorously express a satirical image
		Fusion	Several factors combine to classic items
Kim, Hyun-Jin & Lee, Eun-Sook (2011)	The expression of fashion design using a maximalism character	Expansion	Expansion of the upper half of the body, the lower half of the body
		Decorations	Decorated with props
		Mixture	Mixture of the contrary, textiles or the different sex image
		Non-structure	Non-structure of the avant-garde trend, non-structure through decoration, detail, adjustment direction of a dress

<Table 1> Journal of previous studies related maximalism

Researchers	Research topics	Maximalism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aximalism characteristic elements
Lee, Ji-Hyun & Roh, Youn-sun (2012)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 of maximalism shown in the works of Alexander McQueen	Expandability	Part of detail, expandability of decoration
		Decorations	Expandability of decoration, many colors
		Fusion	Different image, combination of ethnic image and modern image
		Fantasy	Fictive image that could not be seen in reality by expressing an unrealistic
		Experimental element	Shocking and extraordinary images of the inner world, the root of new ideas about inhumane modern society
Lee, Ji-Hyun & Roh, Youn-sun (2013)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 of maximalism shown in the works of Jean Paul Gaultier - Focusing on the Haute Couture collections -	Expansiveness	Double glazed fabric of taffeta, most representative way of expression
		Decorativeness	Expressions of handicrafts, unique ethnic image
		Fusion	Mixture of modern image and ethnic, mixture of orientalism and sexuality
		Experiment	Image deviating from common sense
Kim, Ji-Hye & Yoo, Youngsun (201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aximalism in men's wear	Fusion maximalism	Different cultures in clothing items, men's fashion with feminine decoration
		Decorative maximalism	Details and trimmings of contrasting images, women's clothing items
		Exaggerative maximalism	Exaggerated silhouette, extreme avant-garde that changes the idea of fashion design
		Humorous maximalism	Exaggerative enjoyment and pleasant ideas
		Duplicative maximalism	Implementing vivid images of different period and culture, reproducing successful images of the past into modern fashion

된다고 하였다. <Table 1>은 맥시멀리즘 관련 선행연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위 선행연구를 토대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을 정리한 결과, <Table 2>와 같이 확대과장성, 장식성, 환상성, 퓨전성, 실험성, 비구조

성으로 분류 되었다. 확대성과 과장성은 실루엣이나 디테일의 중첩, 확대로 표현되어 확대과장성으로 명명하였고, 환상성과 퓨처리즘은 상상과 동화 속의 이미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미지로 표현되기 때문에 환상성으로 명명하였다. 퓨전성과 혼합성은 서로

<Table 2> Maximalism characteristic elements

Characteristic	Expandability	Decoration	Fantasy	Fusion	Experiment	Non-structure
Ele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aggerated silhouette - Variegated detail and repetition of mate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ressions of handicrafts - Unique ethnic image - Decorated with pro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pter surreal atmosphere fashion show - Imagination and fairy-tale, surreal image - Glazed fabric, gold & silver color mi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xture of modern image and ethnic - Mixture of orientalism and sexu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cking and extraordinary images - New ideas about inhumane modern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structure of the avant-garde trend

다른 두 가지의 이미지, 디테일, 스타일이 혼합되어 표현된다는 의미이므로 퓨전성으로 명명하였다.

확대는 모양이나 규모의 크기를 더 크게 하는 것을 나타내며 과장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래의 모습보다 그 부피 또는 수의 증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복식에 있어서의 과장은 현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의복의 개념에서 선이나 실루엣이 눈에 띄게 확대되거나 지나치게 왜곡되어 표현됨으로 입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맥시멀리즘 디자인에서 확대과장성은 화려함과 거대함을 보여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 대표적인 표현 특성이다. 이렇듯, 실루엣의 확대, 과도한 중첩을 이용한 구조적 변경, 극단적인 왜곡의 표현을 가미한 확대과장성을 통하여 의상 자체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의복의 개념이 아닌 작가의 창의적 의도와 작품세계를 제시한다.

장식성은 인간의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간은 장식을 하게 됨으로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의복 내부, 외부에 장식적인 디자인이 첨가되면 의복 전체 이미지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고 독창적인 면도 보완할 수 있으며 의복 자체의 개성과 가치를 높여 준다(Lee, 2008). 맥시멀리즘의 장식성은 반복적으로 나열된 러플, 리본 등 필요이상의 과도한 장식적인 디테일을 통하여 더욱 화려하게 표현되며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이 의복을 의복 자체가 아닌 장식으로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한다.

환상성은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상상력과 시각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환상을 제공한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 속의 이야기와 같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실재적인 것과 비실재적인 것 또는 외부의 세계와 내면의 세계의 불분명한 위치에 놓인 것을 시각적인 형태로 가시화함으로써 인간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원적이고 상대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Park, 2008). 맥시멀리즘의 환상성은 여러 환상적인 이미지를 위한 독특한 소재의 사용, 몽환적인 색채와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되며 이를 통한 자극은 디자이너만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퓨전은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 새롭게 만든 것을 뜻하며 이는 혼합과 중첩의 의미도 내

포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맥시멀리즘의 퓨전성은 어울리지 않는 종류의 아이템, 패션 룩(look), 고급문화와 하위문화,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것들의 복잡하고 무질서한 혼합 등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이렇게 질서 없이 혼합된 작품은 인간의 오감을 통하여 해석됨으로 그 이미지가 주는 의미를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이는 시공간을 초월한 전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맥시멀리즘의 ‘과함’이라는 복합적인 개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실험성은 기존의 패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나 의외성을 부여하거나 비정상적인 것들의 이미지를 의복에 표현하며 그 이미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특성을 말한다. 맥시멀리즘 패션에서 이러한 새로운 독창성과 신선함이 돋보이는 표현영역을 제시하는 시도들이 많이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맥시멀리즘의 실험성은 자극적인 주제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영역과의 조화를 시각적인 의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무대 전체의 부위기와 퍼포먼스, 다양한 디테일들의 결합으로 실험적인 이미지를 완성하기도 한다.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 중에서 비구조성은 좌우, 상하 대칭의 구조적인 균형을 이루기보다 비대칭과 불균형을 통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시각화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과장된 실루엣과 과도하게 중첩된 디테일 이외에 비대칭과 불균형의 이미지가 추가되어 그 의미를 분산,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비구조성은 맥시멀리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의복의 밑단이나 스커트 헴 라인의 비대칭, 전체적인 실루엣의 좌우 불균형, 앞여밈의 시각적 불균형 등의 전체적인 외형에서 볼 수 있는 비구조적인 형태와 네크라인의 비대칭, 좌우 디테일의 크기 및 기장의 불균형, 상하 좌우 장식적 이미지의 혼합 등 내부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된다.

위와 같이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은 계속해서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표현 수단이다.

III. Methods

연구 방법은 국내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중에서 맥

시멀리즘과 패션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유형과 특징을 다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확대과장성, 장식성, 환상성, 퓨전성, 실험성, 비구조성으로 크게 6가지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패션 산업에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레이 가와쿠보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맥시멀리즘이 패션계에서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레이 가와쿠보가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온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S/S, F/W Ready to wear와 Menswear로 하였고 총 26개의 컬렉션에서 420여개의 작품 사진을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www.vogue.com)를 통하여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1. Characteristics of maximalism appeared in Rei Kawakubo collection

레이 가와쿠보의 현대 컬렉션에 주로 등장하는 맥시멀리즘의 특성을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확대과장성, 장식성, 환상성, 퓨전성, 실험성, 비구조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1) Expandability

확대과장성은 의복의 실루엣을 과도하게 부풀려 표현한 방법과 신체 일부분을 과장되게 왜곡시켜 표현하는 방법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실루엣의 과장형태는 의복의 전체적인 라인을 크게 부풀려 기능적인 과장의 의미이기보다 위엄함과 유희적인 표현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전통 사무라이 의복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의복은 어깨와 소매, 하의의 좌우 양옆으로 딱딱한 소재를 사용하여 갑옷과 같은 웅장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복잡한 문양으로 확대와 과장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Fig. 5).

<Fig. 6>는 “2차원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컬렉션으로 단순하게 펠트 두 장을 잇거나 자른 후, 붙여 만든 거대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의상이다(Choi, 2012). 의복의 보이는 앞판과 뒷판의 색상을 달리하여 내부에 보이는 색상은 마치 실제 신체 사이즈에 맞게 제작한 의복의 형태로 보이며 이를 한 의복에 나타내고 종이 인형에 옷을 입혀 놓은 듯 오리가미 방법으로 제작한 것처럼 보이는 작품은 확대과장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인체를 왜곡시켜 표현한 방법으로는 과도하게 부풀린 남성 수트 형태의 재킷, 소매 기장을 본래의 길이보다 극도로 길게 왜곡시킨 형태로 확대과장성을 표현하고 있다(Fig. 7, 8). <Fig. 9>는 무겁고 음산한 분위기의 블랙 의상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쳐지고 거대해지는 형태를 부각시키고 있고 블랙에 매치된 과장된 레드컬러의 헤어스타일



<Fig. 5> Comme des Garçons 2016 F/W. From. Vogue Korea. (2016).

<http://runway.vogue.co.kr>



<Fig. 6> Comme des Garçons 2012 F/W. From. Vogue Korea. (2012).

<http://runway.vogue.co.kr>



<Fig. 7> Comme des Garçons 2014 F/W. From. Vogue Korea. (2014a).

<http://runway.vogue.co.kr>



<Fig. 8> Comme des Garçons 2014 F/W. From. Vogue. (2004).

<http://www.vogue.com>



<Fig. 9> Comme des Garçons 2016 S/S. From. Vogue. (2015c).

<http://www.vogue.com>

로 확대과장성을 완성시키고 있다.

레이 가와쿠보 작품에서 맥시멀리즘의 확대과장성은 전체적인 실루엣과 신체 일부분의 과장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의 창의적인 발상과 일본이라는 전통적인 느낌이 합쳐져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며 이는 다른 디자이너들과 구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Decoration

장식성은 인간 본연의 기본적인 욕구로 보다 나은 모습을 추구하며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표출된다. 의복에 장식적인 요소가 첨가되면 전체적인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며 의복의 가치와 개성, 독창적인 면을 보완해 준다고 하였다(Lee & Roh, 2012).

레이 가와쿠보의 컬렉션에서 보여 지는 장식성은 같은 소재 및 컬러를 반복적으로 믹스하여 의복의 과장됨을 표현하는 방법과 다른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혼합하여 다양한 패턴의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결합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구분되었다.

<Fig. 10>은 강렬한 레드 컬러의 소재를 둥근형태의 코사지와 함께 반복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Fig. 11>은 과장된 어깨라인부터 떨어지는 소매선과 스커트의 양 옆 부분을 겹겹이 주름을 잡은 장식으로 웅장함까지 표현하고 있다. 남성 재킷 위에 여러 가지 무늬가 되어있는 넥타이와 행커치프(handkerchief) 형태의 원단을 반복적으로 장식하고 있는 의상에는 니

트(knit), 실크(silk), 코듀로이(corduroy), 모직(wool)과 같은 여러 원단을 믹스하여 컬러가 주는 다채로움까지 더해 장식성을 극대화시키고 상의의 좌우, 소매, 하의 스커트의 절개선등의 부분마다 다른 특성의 원단을 매치하여 복잡함을 자아낸다(Fig. 12, 13). <Fig. 14>는 평범한 옷을 거부하고 어깨라인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블랙의상이 주는 단조로움을 그레이 계열 컬러의 혼합으로 가와쿠보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장식된 재료, 방법의 특성에 따라 실루엣이 과장되게 표현되기도 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소재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3) Fantasy

레이 가와쿠보의 작품에서 맥시멀리즘의 환상성은 초현실적이고 유희적인 표현을 의복에 부여함으로써 신선한 자극과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소매도 없이 인체의 실루엣을 무시한 채 기이한 형태로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은 헤어로 얼굴을 가리고 온 몸 전체를 휴지로 말아놓은 듯, 기괴하면서도 섬뜩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뱀이 꼬리를 들고 있는 모습의 작품은 소매가 없이 부풀어진 의복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소설이나 상상 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Fig. 15, 16).

<Fig. 17>의 층층이 여성스러운 곡선을 살린 스커트의 햄 라인과 아이보리 컬러의 조화로움은 마치 소



<Fig. 10> Comme des Garçons 2015 S/S. From. Vogue. (2014b).

<Fig. 11> Comme des Garçons 2016 F/W. From. Vogue. (2016b).

<Fig. 12> Comme des Garçons 2010 S/S. From. Vogue. (2009a).

<Fig. 13> Comme des Garçons 2011 F/W. From. Vogue Korea. (2011a).

<Fig. 14> Comme des Garçons 2014 F/W. From. Vogue Korea. (2014c).

<http://www.vogue.com> <http://www.vogue.com> <http://www.vogue.com> <http://runway.vogue.co.kr> <http://runway.vogue.co.kr>



<Fig. 15> Comme des Garçons 2015 F/W. From. Vogue Korea. (2015a). <http://runway.vogue.co.kr>

<Fig. 16> Comme des Garçons 2014 F/W. From. Vogue Korea. (2014b). <http://runway.vogue.co.kr>

<Fig. 17> Comme des Garçons 2012 S/S. From. Vogue Korea. (2011b). <http://runway.vogue.co.kr>

<Fig. 18> Comme des Garçons 2009 S/S. From. Vogue. (2008). <http://www.vogue.com>

<Fig. 19> Comme des Garçons 2016 F/W. From. Vogue. (2016b). <http://www.vogue.com>

녀나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수십 개의 코사지로 가려진 얼굴과 상체 일부분으로 유희적이고 신비로운 환상의 이미지를 완성하였다.

<Fig. 18>은 메탈릭한 육각형 모양의 소재를 아플리케의 비 일률적인 형태로 이어붙인 의복과 베이지 계열의 커다란 헤어 장식을 통해 미래공상 과학에 나올 법한 상상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Fig. 19>에서는 산호나 바다 속의 생명체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강렬한 레드컬러의 의상으로 환상의 이미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이미지의 의상을 표현하였다.

레이 가와쿠보가 작품에 주로 사용하는 초현실주의

적 이미지와 기발한 상상속의 형상들은 그에게 패션으로 하여금 잠재되어 있는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작용하며 환상적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준다.

4) Fusion

퓨전성은 혼합과 중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레이 가와쿠보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맥시멀리즘의 퓨전성은 일본의 전통적인 무늬와 동양과 서양의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서로 다른 패션 룩을 믹스매치하여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하나의 의복에 표현하며 독특함을 자아내고 있다. <Fig. 20>은 스포티한 스타일



<Fig. 20> Comme des Garçons 2013 F/W. From. Vogue. (2013). <http://www.vogue.com>

<Fig. 21> Comme des Garçons 2012 S/S. From. Vogue. (2011b). <http://www.vogue.com>

<Fig. 22> Comme des Garçons 2010 S/S. From. Vogue. (2009b). <http://www.vogue.com>

<Fig. 23> Comme des Garçons 2013 S/S. From. Vogue. (2012a). <http://www.vogue.com>

<Fig. 24> Comme des Garçons 2016 F/W. From. Vogue. (2016a). <http://www.vogue.com>

의 의복과 전통 서양복식에서 나타나는 자카드 원단의 긴 코트를 매치하였고 금발의 단발을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도 이러한 의상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Fig. 21>은 현대인들의 블랙 남성 정장에 중세 시대 왕들이 쓰고 다녔던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매치하여 과거와 현재를 혼합한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Fig. 22>는 해체적인 이미지의 상의와 스포츠 레깅스를 연상시키는 하의의 매치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미지의 결합이며 <Fig. 23>의 밀리터리룩의 셔츠와 팬츠에 긴 재킷을 매치하는 것으로도 색다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일본을 상징하는 기모노, 꽃을 모티브로 한 소재, 사무라이를 연상시키는 갑옷형태의 의상도 여러 이미지가 혼합된 퓨전성을 표현하고 있다(Fig. 24). 레이 가와쿠보의 패션에서 보여 지는 맥시멀리즘 퓨전성의 여러 사조 및 스타일의 조합은 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의미하며 오랜 시간동안 쌓아온 안목과 경험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는 표현 수단이라 할 수 있다.

5) Experiment

레이 가와쿠보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맥시멀리즘의 실험성은 다양한 방법의 혼합으로 표현되고 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얼굴부터 상반신 전체를 뒤덮은 형태로 기괴한 생명체를 나타내는 듯 당장 의복으로의 활용이 어려운 의상과 의복의 소재로 적합하지 않

은 재료의 사용들로 표현하고 있다.

<Fig. 25>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는 의문을 자아내는 이미지를 하고 있다. ‘마녀’를 주제로 한 2016 S/S 컬렉션에서 그는 머리 전체를 가리고 무릎까지 내려온 기장의 기괴한 의상을 선보였고 <Fig. 26>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원통 형태의 의상으로 궁금증을 자아낸다. 블랙의 굵은 선 안으로 보이는 화이트 레이스원단, 바다 속의 미역을 연상케 하는 기괴한 헤어스타일로 그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슬픔, 고난, 강박의 이미지가 의복으로 표현된 컬렉션의 한 작품으로 그만의 창의적인 실험성이 돋보인다. 이는 나타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와 보고 해석하는 청중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데에 맥시멀리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Fig. 27, 28>의 작품은 의복의 여러 가지 소매 형태와 헴 라인을 결합시키거나 보이는 방향 그대로를 정면에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자아내도록 새로운 해체적인 의상을 완성하였다. 화이트와 블랙 색상의 원단을 사용하여 형태가 가지는 고유 이미지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정하지 않은 헴 라인, 재킷의 앞 중심 형태가 스커트 밑단 부분에서 보이기도 하고 의복을 입지 않고 몸에 데고 있는 형태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Fig. 28>에서도 검정 색상의 소재를 이용하여 여러 패턴을 겹쳐 하나의 드레스를 완성하고 있고 버려질 양철 구조물을 이용하여 헤어 장식을 완성하였다.



<Fig. 25> Comme des Garçons 2016 S/S. From. Vogue. (2015d).
 <Fig. 26> Comme des Garçons 2015 F/W. From. Vogue. (2015b).
 <Fig. 27> Comme des Garçons 2013 S/S. From. Vogue. (2012c).
 <Fig. 28> Comme des Garçons 2013 S/S. From. Vogue. (2012b).
 <Fig. 29> Comme des Garçons 2011 S/S. From. Vogue. (2010a).

<http://www.vogue.com> <http://www.vogue.com> <http://www.vogue.com> <http://www.vogue.com> <http://www.vogue.com>

2~3가지의 외투를 길게 늘어뜨린 형태 그대로 어깨에 걸친 이미지는 입고 벗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주름을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독특한 요소들을 하나의 의상에 표현하고자 하는 레이 가와쿠보의 작품들은 맥시멀리즘의 과함을 내포한 실험성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6) Non-structure

레이 가와쿠보 작품에서 보여지는 비구조성은 좌우 대칭을 이루는 기존의 의복형태가 아닌 전혀 다른 높낮이, 소재, 색채, 구성 등을 좌우와 상하 비대칭적으로 배열하며 표현되고 있으며 형태 자체의 비구조성을 이용하여 과장을 표현한 방법과 상하, 좌우 패턴의 구조적인 흐름을 흐트러뜨리면서 과장을 표현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는 레이 가와쿠보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해체적 디자인과도 많은 관련이 있으며 맥시멀리즘이 내포하고 있는 과장된 혼합의 의미에 비대칭과 비구조적인 형태가 결합되어 가와쿠보만의 더욱 독창적인 형태로 해석된다.

<Fig. 30>은 하의 왼쪽은 패드가 들어가 부풀어진 소재로 선을 만들어 표현하였고 오른쪽은 왼쪽의 형태를 가림으로써 좌우 대칭을 비대칭으로 표현하였다. 동시에 허리선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발목으로 갈수록 부풀어진 실루엣은 과하게 왜곡됨을 나타낸다.

<Fig. 31>과 <Fig. 32>는 좌우, 상하의 비대칭을 보

여주는 비구조성을 표현하고 있다.

<Fig. 33>는 재킷의 앞 중심선의 좌우로 소재, 문양, 형태의 비구조성이 동시에 적용되었다. 재킷의 형태가 좌우로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 좌측은 기본적인 재킷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우측은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의 상의 부분을 디자인에 적용하여 가슴을 드러낼 정도의 짧은 기장과 끈으로 묶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Fig. 34>는 남성의 기본적인 더블 블래스트 재킷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의복의 흐름이 기울어져 있고 이에 따라 중심과 밑단의 라인, 디테일도 비구조적인 흐름을 따라 기울어져 있다.

대칭은 고전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기위한 요소로 사용되지만 비대칭으로 표현되는 비구조성은 레이 가와쿠보의 초기 디자인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과 강도로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는 디자인요소이며 맥시멀리즘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IV. Conclusion

현대 패션에서 맥시멀리즘은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패션시장에 반대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실험적인 디자인, 독창적인 발상, 여러 가지 특이한 재료들의 결합으로 디자이너의 감각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레이 가와쿠보의 패션이 많



<Fig. 30> Comme des Garçons 2015 S/S. From. Vogue Korea. (2014d). <http://runway.vogue.co.kr>

<Fig. 31> Comme des Garçons 2016 S/S. From. Vogue Korea. (2015b). <http://runway.vogue.co.kr>

<Fig. 32> Comme des Garçons 2010 S/S. From. Vogue Korea. (2010). <http://runway.vogue.co.kr>

<Fig. 33> Comme des Garçons 2011 F/W. Vogue. (2011a). <http://www.vogue.com>

<Fig. 34> Comme des Garçons 2015 F/W. From. Vogue. (2015a). <http://www.vogue.com>

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유도 그만큼 독창적인 발상의 전환이 가져온 깊은 탐구심으로부터 나온 도전 정신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앞서 분석한 맥시멀리즘 패션에 나타난 특성을 토대로 레이가와쿠보의 컬렉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을 분석한 결과 확대과장성, 장식성, 환상성, 퓨전성, 실험성, 비구조성으로 표현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확대과장성은 의복의 실루엣을 과도하게 부풀려 표현한 방법과 신체 일부분을 과장되게 왜곡시켜 표현하는 방법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실루엣을 과도하게 부풀려 표현한 방법으로는 의복의 전체적인 라인을 위엄함과 유희적인 표현으로 나타냈으며 신체 일부분을 과장되게 왜곡시켜 표현하는 방법은 과도하게 부풀린 남성 수트 형태의 재킷, 소매 기장을 본래의 길이보다 극도로 길게 왜곡시키며 그 한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키며 확대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장식성은 같은 소재 및 컬러를 반복적으로 믹스하여 의복의 과장됨을 표현하는 방법과 다른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혼합하여 다양한 패턴의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결합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구분되어 표현되었다. 화려함이 돋보이는 스와로브스키 장식이나 반짝이는 원단의 디테일이 현대 패션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맥시멀리즘의 장식성이라면 레이가와쿠보 작품에서는 주름을 잡은 장식, 니트, 실크, 코듀로이, 모직과 같은 여러 가지 원단이 주는 다양성과 여러 가지 컬러가 가지는 복잡함을 믹스하여 그만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셋째, 환상성은 초현실적이고 유희적인 표현을 의복에 부여함으로써 신선한 자극과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소설이나 상상 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마치 소녀나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의복의 형태가 아닌 조각이나 행위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의 등장이 많았다.

넷째, 퓨전성은 여러 가지 요소, 이미지를 결합하여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의미로 레이가와쿠보의 작품에서는 일본 전통복식의 형태나 무늬와의 결합이 돋보이게 나타났으며 서양과 동양, 중세와 현대 등의 다채로운 영역의 분야들의 결합으로 맥시멀리즘의 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특성으로 해석되었다.

다섯째, 실험성은 레이가와쿠보의 작품세계에서 빠질 수 없는 특성으로 맥시멀리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엇을 묘사하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기괴한 이미지를 다양한 디테일과 방법들로 형성하고 있다. 분해와 해체를 통해 완성된 드레스와 독특한 소재로 만든 장신구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의 의복을 완성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시도하는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매우 도전되는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비구조성은 좌우 대칭을 이루는 기존의 의복형태가 아닌 전혀 다른 높낮이, 소재, 색채, 구성 등을 좌우와 상하 비대칭적으로 배열하며 표현되고 있으며 형태 자체의 비구조성을 이용하여 과장을 표현한 방법과 상하, 좌우 패턴의 구조적인 흐름을 흐트러뜨리면서 과장을 표현한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 일률적이고 통일되지 않은 것들을 복잡하게 조합함과 동시에 하나의 의복에 비구조적인 과함을 나타내는 맥시멀리즘의 의미를 뜻한다.

오늘날의 패션 경향은 하나의 양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디자이너 각각의 개성과 여러 스타일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레이가와쿠보와 관련된 연구들은 해체성과 아방가르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논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연구 분석되어지고 있는 맥시멀리즘이라는 표현 양식을 주제로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패션의 흐름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연구이며 이를 통해 현대 패션디자인의 흐름에 맞는 다양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Buxbaum, G. (2005).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Berlin: Prestel Pub.
- Choi, Y. K. (2012, July 25). *Next dimension*, W, Retrieved September 1, 2016, From <http://www.wkorea.com/2012/07/25/next-dimension>
- Comme des Garçons. (2016). In *Wikipedia*. Reterieved August 3, 2016,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A%BC%BC%EB%8D%B0%EA%B0%80%EB%A5%B4%EC%86%A1>
- Jeong, S. H. (2008). *Characteristic to express maximalism*

- fashion appearing in collection and national brand produ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S.-H., & Jung, H.-J. (2009). Characteristic to express maximalism fashion appearing in fashion collection. *Journal of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1(1), 155-167.
- Kim, H.-J., & Lee, E.-S. (2011). The expression of fashion design using a maximalism character.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3(1), 7-16.
- Kim, J. H., & Yoo, Y. S. (201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aximalism in men's wea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5), 1-13. doi: 10.7233/jksc.2015.65.5.001
- Lee, H. J. (2003). A study on the maximalism depicted in the contemporary costumes.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1(2), 275-292.
- Lee, H.-J. (2008). *A study maximalist hairstyle since 2000*.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H., & Roh, Y. S. (2011). A study of maximalism shown in the works of Victor & Rolf.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1(4), 61-79.
- Lee, J. H., & Roh, Y. S. (2012).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 of maximalism shown in the works of Alexander McQue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6), 165-181. doi: 10.7233/jksc.2012.62.6.165
- Lee, J. J. (2004). *Lifestyle and trend*. Seoul: Yaekyung.
- Lee, J. M. (2012, May 25). Kawakubo Rei. Retrieved August 20, 2016, from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35&contents_id=8811
- Lee, J.-H., & Roh, Y. S. (2013).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 of maximalism shown in the works of Jean paul Gaultier: Focusing on the haute couture collections. *The Treatise on The Plastic Media*, 16(4), 205-214.
- Lee, K.-H. (2010). Costume messages of Kawakubo Rei.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2(2), 139-148.
- Lee, S.-R. (2003). Aesthetic deviation of modern fashion design through Rei Kawakubo. *Journal of Fashion Business*, 7(5), 45-53.
- Park, E. K. (2008). A study on maximalism in the modern fashion: Focused on the 200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3), 1-18.
- Park, H. Y. (2016, May 13). Kawakubo Rei lace sweater rule-breaking. joongang.joins.com. Reterievd August 3, 2016, from <http://news.joins.com/article/20019131>
- Vogue Korea. (2010, April 19). Fall/Winter 2010 ready to 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runway.vogue.co.kr/2010/04/19/ready-to-wear-2010-fw-comme-des-garcons/#0:32>
- Vogue Korea. (2011a, Aril 22). Fall/Winter 2011 ready to 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16, 2016 from <http://runway.vogue.co.kr/2011/04/22/ready-to-wear-2011-fw-comme-des-garcons/#0:22>
- Vogue Korea. (2011b, November 23). Spring/Summer 2012 ready to 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0, 2016 from <http://runway.vogue.co.kr/2011/11/23/ready-to-wear-2012-ss-comme-des-garcons/#0:32>
- Vogue Korea. (2012, Aril 12). Fall/Winter 2012 ready to 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14, 2016 from <http://runway.vogue.co.kr/2012/04/12/ready-to-wear-2012-fw-comme-des-garcons/#0:25>
- Vogue Korea. (2014a, March 4). Fall/Winter 2014 ready to 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14, 2016 from <http://runway.vogue.co.kr/2014/03/04/ready-to-wear-2014-fw-comme-des-garcons/#0:0>
- Vogue Korea. (2014b, March 4). Fall/Winter 2014 ready to 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16, 2016 from <http://runway.vogue.co.kr/2014/03/04/ready-to-wear-2014-fw-comme-des-garcons/#0:4>
- Vogue Korea. (2014c, March 4). Fall/Winter 2014 ready to 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16, 2016 from <http://runway.vogue.co.kr/2014/03/04/ready-to-wear-2014-fw-comme-des-garcons/#0:16>
- Vogue Korea. (2014d, September 29). Spring/Summer 2015 ready to 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runway.vogue.co.kr/2014/>

- 09/29/ready-to-wear-2015-ss-comme-des-garcons/#0:9
- Vogue Korea. (2015a, March 9). Fall/Winter 2015 ready to 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16, 2016 from <http://runway.vogue.co.kr/2015/03/09/ready-to-wear-2015-fw-comme-des-garcons/#0:1>
- Vogue Korea. (2015b, October 4). Spring/Summer 2016 ready to 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runway.vogue.co.kr/2015/10/04/ready-to-wear-2016-ss-comme-des-garcons-collection/#0:7>
- Vogue Korea. (2016, March 6). Fall/Winter 2016 ready to 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14, 2016 from <http://runway.vogue.co.kr/2016/03/06/ready-to-wear-2016-fall-comme-des-garcons-collection/#0:3>
- Vogue. (2004, March 3). Fall 2004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16,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04-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11>
- Vogue. (2008, September 30). Spring 2009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0,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9-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20>
- Vogue. (2009a, June 26). Spring 2010 mens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16,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0-mens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22>
- Vogue. (2009b, October 3). Spring 2010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0-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22>
- Vogue. (2010a, October 2). Spring 2011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1-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17>
- Vogue. (2010b, October 2). Spring 2011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ne 14,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1-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39>
- Vogue. (2011a, March 5). Fall 2011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29>
- Vogue. (2011b, June 24). Spring 2012 mens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2-mens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5>
- Vogue. (2012a, June 29). Spring 2013 mens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3-mens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1>
- Vogue. (2012b, September 29). Spring 2013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3-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16>
- Vogue. (2012c, September 29). Spring 2013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3-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36>
- Vogue. (2013, January 18). Fall 2013 mens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3-mens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6>
- Vogue. (2014a, January 17). Fall 2014 mens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ne 14,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mens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2>
- Vogue. (2014b, September 27). Spring 2015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1>
- Vogue. (2015a, January 23). Fall 2015 mens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mens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9>
- Vogue. (2015b, March 7). Fall 2015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10>
- Vogue. (2015c, October 3). Spring 2016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16,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1>
- Vogue. (2015d, October 3). Spring 2016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13>
- Vogue. (2016a, March 5). Fall 2016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1,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7>
- Vogue. (2016b, March 5). Fall 2016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0,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10>
- Vogue. (2016c, March 5). Fall 2016 ready-to-wear: Comme des Garcons. Retrieved July 20,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17>
- Yoo, R. N. (2012, October 5). 정체불명의 꿈 테 가르 송, 레이 카와쿠보의 최초의 순간들 [Unidentified Comme des Garcons, the best moments of Kawakubo Rei]. *Elle.co.kr*, Retrieved August 20, 2016, from <http://www.elle.co.kr/article/view.asp?MenuCode=en010103&intSno=7282>